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서론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치실 때에 이 세상의 사물들을 통하여 가르치셨다. 특히 비유가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즉 세상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하늘의 사물을 그대로 세상에 제시하면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다.

[요 3:12,13]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 비유로 가르치심

[막4:33,34]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은 것을 해석하시더라.

●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마 13:31]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 13: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 13: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 13: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마 20: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 22: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 25: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 위의 말씀들은 다 마태복음의 말씀들이다. 예수께서 천국을 세상의 사물들로 비유하셨다.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παραβολή)”인데 “곁에 놓는다”는 뜻이다.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와 비슷한 잘 아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곁에 둔다는 말이다. 하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통하여 하늘을 설명하여 주시는 것을 비유라고 한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늘을 설명해 주시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dnk} 재료들을 볼 때 곧 하늘을 연상할 수 있게 해 주셨다.

-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비유할꼬?”라는 형식의 말씀을 하셨다.
 - [막 4:26]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 [막 4:30]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 [눅 13:18]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 [눅 13:20]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2.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예표해주셨다.

- [히1:1,2]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 [요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 [요5:46]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 [눅24: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호11:1]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 [마2: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 [출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 [마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롬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 [마12:39,4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 [마26: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 이상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구원의 사업을 사람과 사건과 제도와 예언을 통하여 미리 표상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들이다. 표상은 비유와는 성질상으로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성소제도를 비유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사업을 비유적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히9: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 이미 구약성경에 표상이라는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사업을 계시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주위 환경과 일상의 사물들을 통하여 구원의 실상인 천국의 여러 면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배려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사물을 통하여 하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성경에는 이렇게 땅의 것으로 하늘과 구속의 도리를 배우도록 충분히 가르쳐 주셨다. 그중에 특히 구원의 사업을 인물, 사건, 제도, 예언으로 명확히 제시하셨는데 이중에 사건의 대표적인 것인 출애굽 사건이고, 제도의 대표적인 것인 성소제도와 절기제도이다. 이제 이 표상적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믿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살펴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